

‘우승 확률 94.7%’ KIA, 이번 주 축포 터트릴까

KIA 정규 시즌 ‘매직 넘버’ 6

12일 롯데전·14~15일 키움전

KIA 3승·삼성 3패 시 우승 확정
라우어-스타우트-양현종 총력
김도영, 40-40·최다 득점 도전



KIA타이거즈가 올 시즌 80승 고지를 선점하면서 정규 시즌 우승 확률 94.7%를 확보했다.

매직 넘버 6까지 줄이면서 이제는 한국시리즈 직행이 가시화된 분위기다.

KIA는 재편성 경기가 진행된 지난주 LG트윈스(3일)에 승리를 거두며 순조롭게 출발한 뒤 한화이글스(4~5일)와는 1승 1패를 나눠 가졌고, 키움히어로즈(6~8일)에 3승을 거두면서 올 시즌 80승 2무 50패(승률 0.615)를 기록했다.

역대 KBO 리그(단일리그 기준)에서 정규 시즌 80승에 선착한 팀의 우승 확률은 19회 중 18회로 무려 94.7%에 이른다. 타이거즈는 해대 시절이었던 1993년과 KIA로 바뀐 뒤인 2009년과 2017년 세 차례 80승을 선점한 뒤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KIA가 지난주 5승 1패로 승패 마진 +4를 기록한 가운데 2위 삼성라이온즈가



KIA타이거즈가 오는 12일 롯데디자인츠, 14~15일 키움히어로즈와 안방에서 3연전을 치른다. KIA타이거즈 이범호 감독이 지난 3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LG트윈스와 맞대결에서 승리한 뒤 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다.

KIA타이거즈 제공

같은 기간 4승 1패를 거두면서 정규 시즌 우승에 필요한 승수인 매직 넘버는 6까지 줄어들었다. 이번 주 KIA가 3경기, 삼성이 4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양팀의 결과에 따라 우승 축포를 터트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KIA는 오는 12일 롯데디자인츠를 만난 뒤 14일과 15일에는 키움과 맞대결을 치른다. 세 경기 모두 안방에서 치러지는 일정으로 지난주부터 이어진 광주 9연전을 마무리하게 된다.

반면 삼성은 11일과 12일 한화와 원정 경기를 치른 뒤 14일과 15일에는 SSG랜더스와 원정 경기를 이어간다. 다음 주 두산베어스(17일)와 KT위즈(18~19일)까지 원정 7연전이 예고됐다.

KIA는 자력으로 매직 넘버를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최소 2승 1패를 확보해야 하고 KIA가 3승을 거둘 경우 삼성이 1승 3패, KIA가 2승 1패를 기록할 경우 삼성이 4패를 해야 축포를 터트릴 수 있다.

2024 KBO리그 순위 (9일 현재)

순위	구단	게임	승	패	무	승률	승차
1	KIA	132	80	50	2	0.615	-
2	삼성	132	73	57	2	0.562	7
3	LG	130	68	60	2	0.531	11
4	두산	132	65	65	2	0.500	15
5	KT	131	64	65	2	0.496	15.5
6	SSG	130	61	67	2	0.477	18
7	한화	128	60	66	2	0.476	18
8	롯데	127	57	66	4	0.463	19.5
9	NC	128	58	68	2	0.460	20
10	키움	130	54	76	0	0.415	26

이범호 감독은 이번 주 세 경기에 대해 일찌감치 총력전을 선언했다. 최대한 빠르게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 지은 뒤 주축 선수들에게 휴식을 부여하고 한국시리즈 엔트리를 구성하는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KIA는 롯데를 상대로 에릭 라우어, 키움 상대로는 에릭 스타우트와 양현종이 선발 등판할 예정이다. 세 선수 모두 6일 휴식을 취하고 일주일 간격으로 등판하게 되는 일정이다.

라우어는 롯데를 상대로 처음 선발 등판이다. 올 시즌 광주에서의 세 차례 선발 등판에서는 14.2이닝을 소화하며 12실점으로 평균자책점 7.36에 그쳤으나 직전 등판인 지난 5일 한화전에서는 직접 사인을 내며 6.1이닝 3실점으로 한국 무대 첫

퀄리티스타트를 챙겨 기대감을 높였다.

스타우트는 일주일 만에 다시 키움을 상대하게 됐다. 그는 지난 7일 키움전에서 5이닝 1실점으로 준수한 투구 내용을 보였고, 탈삼진도 8개를 챙기며 한국 무대 데뷔 첫 승을 신고했다.

양현종은 키움을 상대로 전적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올 시즌 네 차례 선발 등판에서 27이닝을 소화하며 2승, 평균자책점 1.33을 기록했다. 지난 8일 키움전에서도 7이닝 1실점으로 하이퀄리티스타트(7이닝 이상·2자책점 이하)를 챙긴 가운데 이번 등판에서 10이닝 연속 170이닝(현재 162이닝)을 달성할 지도 관심사다.

롯데는 김진욱으로 맞설 전망이다. 키움은 하루 휴식을 취하고 광주로 내려오기 때문에 선발 로테이션 순서를 지킨다면 김민범과 아리엘 후라도, 등판 간격을 지킨다면 후라도와 엔마뉴엘 데 헤이스가 마운드에 오른다.

‘야구 천재’ 김도영의 도전도 초미의 관심사다. 현재 129경기에서 35홈런, 38도루, 100타점, 128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김도영은 40홈런-40도루 달성은 물론 한 시즌 최다 득점(135득점) 경신에도 도전장을 냈다. KIA가 12경기를 남겨놓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 주 세 경기에서 홈런과 득점을 얼마나 추가하느냐가 관건이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무안군청 검토, 추계전국실업대회 단체전 2연패

무안군청 검토팀이 추계전국실업검도대회 단체전 2연패를 거머쥐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메달 전망을 밝혔다.

9일 전남도체육회와 전남도검도회에 따르면 무안군청 검토팀이 지난 5~8일 무안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제21회 추계 전국실업검도대회에서 단체전 우승과 개인전 동메달을 차지했다.

무안군청은 남자 단체전 16강에서 충남체육회를 3-2로, 8강에서 용인시청을 2-1로 이겼다.

준결승에서 수원시청과 2-2 동점을 이뤘지만 한 포인트 차 승리로 결승에 오른

무안군청은 인천시청을 상대로 마지막 승부에서 김한범의 손목치기 승으로 3-2로 이기고 지난 대회에 이어 2연패를 달성했다. 개인전에서는 주장 유하늘이 6단부 준결승에서 김정진(남양주시청)에 0-2로 져 동메달에 만족했다.

이광철 무안군청 감독은 “지난해 추계 대회에 이어 다시 한번 정상을 차지, 대회 2연패를 달성해 매우 기쁘다.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에게 고맙다”며 “오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지난 7일 광주여대 체육관에서 열린 제17회 광주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 참여한 광주 초·중·고등학생과 광주은행 배드민턴 선수들이 원포인트 레슨 재능기부 행사를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은행 배드민턴팀 제공

광주은행 배드민턴팀 스포츠 재능기부 ‘호응’

지역 초·중·고등학생 200명 대상

광주은행 배드민턴팀이 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재능기부를 펼쳐 호응을 얻었다.

광주은행 배드민턴 실업팀 선수 6명은 지난 7일 광주여대 체육관에서 열린 제17회 광주시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 참여한 광주 초·중·고등학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스포츠 재능기부 행사를 펼

쳤다. 선수들은 시범경기를 선보인 뒤 학생들에게 배드민턴 기본기와 경기 운영 노하우는 물론 원포인트 레슨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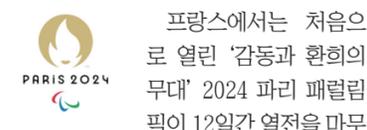
이현승 광주은행 배드민턴팀 트레이너는 “이번 재능기부는 지역민들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 배드민턴 저변 확대를 위해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배드민턴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장애인 태극전사 덕분에... 무더위 잊었다

2024 파리 패럴림픽 폐막

금 6·은 10·동 14... 종합 22위
광주-전남 소속 금 1·은 4·동 4
김영건, 개인 통산 5호 금메달
서수연·강선희 은 1·동 1 수확



프랑스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감동과 환희의 무대’ 2024 파리 패럴림픽이 12일간 열전을 마무리했다. 장애인 태극전사들은 목표했던 금메달 5개 이상 획득을 초과 달성하는 등 선전을 펼치며 초가를 무더위에 지친 국민들에게 시원한 경기력을 선사했다.

2024 파리 패럴림픽이 9일(이하 한국 시간) 오전 프랑스 생드니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한국은 이번 대회 금메달 6개와 은메달 10개, 동메달 14개 등 총 30개의 메달을 수확하며 종합 순위 22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목표했던 금메달 5개 이상 획득을 초과 달성했다. 사격의 박진호(강릉시청)가 2관왕에 올랐고 사격의 조정두(BDH파라스)와 보치아의 정호원(강원도장애인체육회), 탁구의 김기태(서울시장장애인체육회)와 김영건(광주시청)이 함께 금빛 낭보를 전했다.

광주-전남 소속 장애인 태극전사들은 금메달 1개와 은메달 4개, 동메달 4개 등 총 9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선전에 힘을 보탤었다. 지난 2020 도쿄 패럴림픽 은메달 6개와 동메달 2개의 성적을 뛰어넘은 쾌거다.

탁구의 김영건은 지역에서 유일한 금메



한국 장애인 카누 국가대표팀 최용범이 9일(한국 시간) 오전 프랑스 생드니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폐회식에 태극기를 들고 입장하고 있다. 뉴스

달리스트가 됐다. 김영건은 지난 8일 오전 프랑스 파리 아레나 파리 슈드에서 열린 이번 대회 탁구남자 단식 MS4 금메달 결정전에서 완차이 차이우트(태국)에게 3-2(6-11, 11-9, 11-7, 9-11, 11-5)로 역전승을 거두고 정상에 올랐다.

또 김영건은 2004 아테네 패럴림픽 남자 단식과 남자 단체전, 2012 런던 패럴림픽 남자 단식, 2016 리우데자네이루 패럴림픽 남자 단체전에 이어 다섯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사격의 김임연과 함께 두 번째로 많은 패럴림픽 금메달을 차지한 국내 선수가 됐다.

탁구의 서수연(광주시청)과 보치아의 강선희(한전KPS)는 나란히 은메달과 동메달 1개씩을 수확했다. 서수연은 탁구 여자 복식 WD5에서 윤지유(성남시청)와 은메달을 합작한 뒤 여자 단식 WS1~2에서 동메달을 추가했고, 강선희는 보치아 여자 단식 BC3에서 동메달을 목에 건 뒤 혼성 페어 BC3에서 정호원과 은메달

을 합작했다. 사격의 이윤리(완도군청)와 배드민턴의 유수영(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은메달을 보탤었다. 이윤리는 사격 여자 10m 공기소총 입사 SH1에서 은메달을 수확했고, 유수영은 배드민턴 남자 복식 WH1~2에서 정재근(울산중구청)과 은메달을 합작했다.

탁구의 박진철과 김정길(이상 광주시청)은 동메달을 추가했다. 박진철은 탁구 남자 복식 MD4에서 차수용(대구시청)과 동메달을 합작했고, 김정길은 남자 단식 MS4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한편 2024 파리 패럴림픽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한국 선수단의 해단식은 1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다. 배동현 선수단장은 대회 기간 중 열린 ‘선수단의 밤’ 행사에서 참가 선수와 지도자 등 선수단 모두에게 해단식에서 순금 메달을 선물할 것을 약속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